

병실에 누워있는 지울 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다.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지울 스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청하고 나섰다. 천성산 대덕위와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연석회의 대표자들은 1월 16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종강당에서 '지울 스님 단식에 부친 대국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울 스님의 단식만이 관심의 대상일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 “지울스님 외침에 귀를...”

## 환경단체 “단식만 보지 말아 달라” 호소문 발표

며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또 △부조리와 연결된 사회지도층 각종 △천성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가칭)천성산 진실센터 설치 제안 등을 촉구했다.

신특사 주지 세영 스님과 동국대 정각원장 진철 스님, 백남석 인드라망 공동대표 공동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병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호소문을 발표

한 뒤 지울 스님이 입원해있는 병실을 찾아 건강회복을 기원했다. 대표단이 인사를 하는 동안 지울 스님은 기운 없는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백남석 인드라망 공동대표는 “지울 스님이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 사회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셈”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석현 동국대 의무원장과 김영권 중환자실장 등 의료진은 1월 20일 “지울 스님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수액치료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해 의료진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울 스님이 목숨을 걸고

밝히고자 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에 관계된 기관과 인사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스님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비의학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철도시설공단 측이 “공중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측발표해 중단됐던 천성산 공동조사가 1월 20일 재개됐다. 조사는 1월말까지 마무리되며, 3월말 또는 4월 초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박봉영 기자

# 성보문화재 4점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월 17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경합부>, <해동조계부암화상집자>, <월인석보 권20>, 흥천사 종 등 모두 19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 965-(2호)로 지정된 <육경합부>는 급경경, 보현행원품, 대불정수능입신주, 아미타경,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관세음보살에문 등 67가지 경전을 한 책으로 간행한 불서로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출간하게 된 경위가 분명해 불교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흥천사종은 고려 말부터 수용된 중국 종 요소가 한국 전통 종의 형식

및 요소와 가미돼 새로운 조선 전기의 종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 제1460호로 지정됐다.

조선 세종 29년(1447년) 판본으로 알려져 있는 보물 제1459호 <해동조계부암화상집자(海東曹溪岫庵和尚雜著)>는 총지 스님의 저술로 스님의 문집 중에 잡저(雜著)만을 간행한 현전하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월인석보 20권>은 조선 초기 불교 경전 연구와 한글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아 보물 제745-Ⅱ호로 지정됐다. 김두식 기자

# ‘친일승려 108인’ 저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지난해 3월 출간된 <친일승려 108인>에서 친일 행위자로 지목된 효당 최범술 스님의 유족이 저자 해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108명의 유족이나 문도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은 지난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친일승려 108인>이 고인의 항일운동사실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누락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의 처분을 요구했다.

<친일승려 108인>에는 최범술 스님이 △사천 다술사 주지직을 1928년부터 수행한 점 △북지황군위문단 일원으로 일본군 위문단 점 등을 근거로 최범술 스님을 친일승려로 분류돼 있다.

유족 재원화씨는 “최범술 스님은 독립운동에 몸바친 분”이라며 “왜곡된 저서가 후대 학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고민 끝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책의 저자 해봉 스님은 “책에 기술된 내용은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없는 사실을 날조한 바 전혀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축했다. 박익순 기자

# 복지자·건강가정센터 설립 조계종복지재단 계획 발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관)이 불교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하고 불교적 가정문화 형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사회복지재단은 1월 18일 내부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신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소하는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앞으로 승가복지사업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다각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6월 각 영역별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나선다.

3월에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사회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이외에도 불교사회복지 조사연구지를 발간한다. 이은비 기자

# 고려 감지금니 법화경 5억1천만원에 낙찰

1월 18일 열린 K옥션의 두 번째 경매에서 회화성이 뛰어난 변상도와 유려한 서체의 경문으로 관심을 모았던 ‘감지금니법화경 제5권’ 사경작품이 5억1000만원에 낙찰됐다(본지 561호 22면 참조).

고려시대 사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작품은 예상대로 높은 가격에 팔렸다. 강지연 기자

# ‘복지시설 위탁 축소’ 대책 촉구

##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안 간담회

조계종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이 틀을 갖춰 가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불교사회복지 진흥법 제정안을 위한 간담회’에는 총무원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및 단체, 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복지가 곧 포교’라며 “진흥법이 마련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위탁운영 축소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을 촉구하고, 교구본사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직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해 회방복지원 원장 효천 스님은 “종단 사회복지정책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을 아우르는 큰 틀의 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교구본사에 직영 복지관을 하

나키 운영하는 방법을 건의했다.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 현각 스님은 “불교복지를 전방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복지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아직 진흥법과 관련된 지원 부분보다는 규제에 관한 법령이 더 많다”며 수정 보완할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종단 등록 법안, 대표이사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에 조계종 스님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법안 등에 대해 “복지시설 운영의 자율적 폭을 좁혀가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사찰 부동산 재산출연에 대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던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오는 2월 초 총무원회의와 중앙종회의의 검토를 거쳐 3월 본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은비 기자

# 해남 장애인복지관 수탁 대홍사, 연 4천만원 지원

해남 대홍사가 전남 서부권에서는 두번째로 복지기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불교계의 지역복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비 기자

해남군은 대홍사(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해남지부)를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자로 선정했다. 1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의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대홍사는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 이어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하게 됐다. 이은비 기자

# 한국불교, 亞 네트워크 형성

## 캄보디아·스리랑카에 교육·복지시설 설립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등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한국불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상관·효림)의 스리랑카·캄보디아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시엠펙에 가야 보육·교육 시설 건립을 시작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국제 NGO인 (사)실천불교는 2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캄보디아 정부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준공 컷팅식을 할 예정이다.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로 명명된 이 시설은 실천불교가 2004년 10월 캄보디아 정부와 업무협정서를 체결해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은 1만2000평의 부지에 건립됐다.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원과 6개 학년별 30명 내외를 교육할 수 있는 초등학교, 부대시설 등을 갖춰 한국과 캄보

디아의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꼽힌다. 향후 중학교도 설립해 종합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스리랑카에 조계종마을을 건립한 조계종 총무원은 복지센터 건립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스 문화사회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 진행하는 조계종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3월 캄파지방 파살라 2만 5000여평의 부지에서 첫 삽을 뜬다.

조계종 복지센터는 아동보육과 불교문화교류, 현지인 직업교육 등을 3대 사업으로 보육시설, 방앗간, 숙소, 식당, 보건소, 유치원, 행정실 등이 들어선다. 또 한국 전통사찰과 수행체험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상관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과 실천불교의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지원이 아시아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홀로피는 연꽃’ 모델 스님 입적

## 5일만에 발견...조출하게 영결 다비



사찰에서 입적한지 5일 후에도 발견된 뒤 뒤늦게 영결식을 치러 불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도 용인 동선사 주지 정원 스님(64·사진)이 법당 앞 냇물에서 아래 풀밭에서 입적한 채로 발견된 것은 1월 15일 오전 10시경. 동선사에서 법회를 보기 위해 찾아 온 인근 군부대 장병들에 의해 사체였다. 정원 스님은 동선사에 홀로 거주하며 매주 일요일 군인들과 법회를 진행해 왔다. 동선사를 찾은 신도도 그리 많지 않아 눈치챈지만 일요일에는 불자들의 자원봉사로 군인들과 법회를 꾸려 왔다.

경찰과 의료진은 스님의 입적 시점을 11일로 보고 있다. 홀로 사는 스님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넘어져서 떨어진 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5일 후엔 법구가 발견된 것이다. 정원 스님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신도 권모씨는 “지난 12일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안 받으셨다”며 “13일 재가 있어서 바쁘신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말했다. 14세에 출가한 정원 스님은 용인지역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군 장병들에 대한 각별한 포교 원력으로 군 장병 법회에 가장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스님은 수행에도 철저하며 공양주 없이 홀로 사찰을 지키며 정진해 온 것이다. 정원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는 1월 17일 동선사와 수원 연화사에서 조출하게 거행됐다. 임연태 기자

#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 귀의삼보하움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를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4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습掌 -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쁜과정	예경의식 및 조·석 예법,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 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작법과정	바리춤, 나비춤, 범고 등 시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3 전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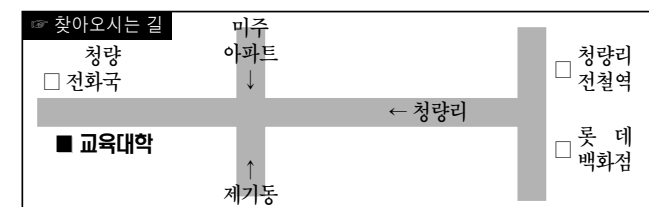
서류전형(면접)

##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5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수계증명서 사본
  - 3) 반명함판 사진 4매
-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6년 1월 25일 ~ 2월 15일  
▶ 입 학 일 : 2006년 1월 16일



##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